

[경제]

광주·전남 체감경기 좋아졌다

■ 韓銀 광주전남본부 소비자자동향 조사

생활형편·경기전망 크게 높아져

경기회복과 가계수입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4~14일 광주·전남지역 3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2·4분기 소비자자동향조사(CSD)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현재생활형편 CSI는 90으로 지난해 1분기

(91)에 이어 5분기만에 90선에 올라섰다. 이는 올해 1분기(83)에 비해 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CSI가 100을 넘으면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나타났다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현재경기판단 CSI도 전분기(77)보다

15포인트 상승한 92로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민들이 늘었다.

이와함께 경기전망 CSI(92→105), 가계수입전망 CSI(98→102), 생활형편전망 CSI(94→98), 고용사정전망 CSI(82→94)도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다만 물가수준전망 CSI는 135로 전분기(13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들의 물가상승 우려는 지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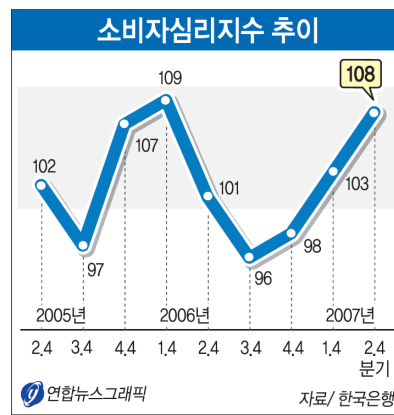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응답자들의 50%가 급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회복에 대

한 기대감이 쉬이면서 체감경기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8로 전분기보다 5포인트 올라갔다.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 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 등 6개 CSI 지수를 합해 도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3분기 96에서 4분기 98, 올해 1분기 103, 2분기 108 등으로 3분기 연속 상승했다.

2분기의 현재생활형편 CSI는 전분기보다 5포인트 높아진 87을, 생활형편전망 CSI는 4포인트 올라간 95를 나타냈



다. 가계수입전망 CSI는 96에서 98로, 소비지출전망 CSI도 110에서 112로 높아졌다.

2분기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전분기보다 15포인트나 급등한 84를 나타냈으며 향후경기전망 역시 14포인트 오른 98을 기록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

/장필수기자 bung@kwangju.co.kr

공기업 지방대생 급감

신입공채 비율 2006년 43% → 올 31%

주요 공기업의 신규채용에서 지방대생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기업들에 따르면 31개 주요 공기업들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방대생 비율은 2005년 39.4%에서 지난해 42.7% 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1.2%로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이들 공기업의 전체 채용인원 1천302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40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대생 비율이 신입사원 공채의 50%를 넘는 곳은 조폐공사(80.4%), 국민연금·코스콤(각각 60.0%씩), 기술보 증기(58.6%), 한국전력(52.6%), 지역난방공사(50.0%) 등 6개사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조폐공사와 국민연금은 지방대생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17.2%P와 11.2%P씩 늘어 두자릿수의 증가 기록했다. 그러나 코트라도 올해 신규 공채 27명중 지방대생은 한명도 없었고 금융감독원(2.0%), 한국은행(5.1%), 한국주택금융공사(8.0%), 산업은행(9.2%) 등 4개사는 10% 미만이었다.

이처럼 지방대생 비율이 줄어든 원인은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채용시 지역인재활용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년째 이어진 취업난으로 서울 명문대생들이 대거 공기업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기업 공채에서 여성의 비율은 2006년에 평균 32.7%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30.3%를 나타내는 등 평균 30%가 넘었다. 또 고령 입사자들도 빠르게 늘어 토지공사 등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공채 130명 가운데 만 33세 이상 고령자는 5.4%인 7명으로 지난해 고령자비율인 3.8%에 비해 높아졌다.

/장필수기자 bung@kwangju.co.kr

27일까지 한미 FTA 2차 추가협상

美측 수정안 수용 여부 주목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중전 입장을 달리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2차 추가협상을 한 뒤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미국측의 수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주목되고 있다.

김중환 한·미 FTA 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측과의 두번째 추가협상을 위해 이날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인다”고 보고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는 김 본부장의 방미 협의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1차 추가협상 이후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다”던 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30일 서명식 이전에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수정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한미 FTA 특위에서 추가협상과 관련, “양측이 무난한 협의를 거쳐 30일 이전에 타결, 협정문에 반영하는 것과 30일 이후로 넘어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추가협상이 30일을 넘어가면 한·미 양측 모두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30일을 넘길 경우 미국의 회 내에서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담이 (양측 모두에) 있고 좋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 본부장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미국에서 열리는 추가협상 과정에서 여제안을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해 이번 협의에서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규제개혁추진단 설립 '박수'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석래 (앞줄 왼쪽 네번째) 전경련 회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산하 규제개혁추진단 헌관식 참석자들이 추진단 설립을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장·학교 지방 이전 '탄력'

정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확정

1970년~2000년 시대별 구직활동 현황

30년간 입사지원횟수 4배 증가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t.com)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www.embrain.com)은 1970년대~2000년대에 처음 취직할 4년제 대졸 직장인 1천372명을 상대로 실시한 '시대별 구직활동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입사지원횟수 급증=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직자들의 입사지원횟수다. 1970년대에 처음 취직할 직장인의 평균 입사지원횟수를 조사한 결과 3.2차례였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 구직자들은 각각 평균 5.5차례와 5.4차례씩 입사지원한 끝에 첫 직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취업한 직장인들은 평균 13.9차례나 입사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여 년 전인 1970년대보다 4.3배나 늘어난 수치다. 〈모병생'보다는 '능력'과 '기'=

기업들이 인재를 찾는 방식도 시대별로 차이를 드러냈다.

각 시기별로 입사준비시 가장 중점으로 노력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1970년대 첫 입사자 중에서는 '필기시험'이라는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고 '면접'이 31.5%, '서류전형'이 22.5%로 뒤를 이었다.

1990년 첫 입사자들부터는 '면접전형' 준비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응답이 40.5%로 급증했다. '필기시험'이라는 응답은 28.4%, '서류전형'은 26.6%였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과거에는 필기시험으로 구직자들의 성실성을 평가했다면 1990년대 말 이후부터는 지원자들의 인성이나 끼를 평가하기 위해 면접전형이 강화되고 서류전형에서 드러나는 학점이나 영어점수, 경력 등 소위 '스펙'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며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도권내 학교나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하여 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전공장의 구리공정 전환문제에 대해 유해물질의 무방류시스템을 갖추면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전이 '팔당·대정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어서 구리나 납 등 특정중금속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갈 수 없으나 하이닉스가 유해물질을 방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은행은 올 하반기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술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서고 금리도 최고 1%포인트까지 우대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 학교나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시 지자체가 건교부 등과 협의하여 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없애도록 했다.

또 현재 제조·건설 등 29개 업종의 국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현정은 현대회장 상대 손해소

예보, 현대건설·하이닉스 부실 책임

예금보험공사가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시절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반도체 부실 책임과 관련,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기업주 등에 대해 직접 손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예보의 소송 제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대신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금보험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25일 현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7월 중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현 회장 외에 김윤규·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환율 하락세

원·엔 9년9개월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원·엔 환율은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9년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40원 떨어진 926.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0.40원 하락한 927.5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926.00원으로 하락했다. 이후 환율은 추가 하락을 제한받은 채 926원선에서 횡보세를 보였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달러화 공급 우위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매도세를 지속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락 반전했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747.90원으로 떨어지며 97년9월19일 747.60원 이후 9년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기업대출 급증... 경기지표와 '엇박자'

은행 '리스크 관리' 부담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분기별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05년 1분기 -0.7%를 기록한 후 2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돼 갈수록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 증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경기순응적 양상을 보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이던 가운데 기업대출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상 현상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신한유화	생산업무 담당자 구인공고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27	062-944-8485
대우동기	지게차운전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8	062-941-9511
터진	영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9	062-383-7205
부흥시스템	본사 기술직 남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6/29	062-382-9428
한국보수선	[전남순천]회계담당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1-726-1934
INBET(인베트)	전략, 기획, 재무, 사업계획 등 능통한 인재 모집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6/30	062-367-9063
웨임에스텍	전산실 보안관리 경력자모집	초대졸/경력6년	회사내규	06/30	02-6332-5513
현우기공	총무 및 전산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800~2000	06/30	062-954-4369
케이이	일본어 통역 및 품질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30	062-945-0880
LGI이노텍	사무지원 인력 및 비서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01	062-950-1903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7년 분야별 정규 영업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1	062-524-6900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 TM센터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7/01	062-360-5201
광주광역시청정보센터	[응용프로그램/웹디자인/웹프로그래밍] 정규직 채용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7/02	062-224-8564
엘론사지	하노호텔레스토랑 객석센터 인바운드 예약담당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7/02	02-6012-9540

(광주집코리야 512-6210 제공)

'증권사 신규 인가' 현황 조사 후 결론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5일 증권사 신규 인가 문제와 관련, “증권산업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을 강하게 시사했던 전총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발언 내용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인가는 순차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신규 인가를 불허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만 증권사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금감위가 지난 수년간(신규 인가에) 엄격한 시각을 유지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